

| 산업이슈 브리프 |

# eBEST Tech Brief

## 스마트폰 시장 동향 - 감산 우려가 현실로

### Check Point

- 2Q22 출하량 YoY 역성장 전망
- Order-Cut(감산) 시작
- 위태로운 중국 시장, 중국 업체
- 2H22는 신제품으로 돌파구 찾을까?

Analyst 김광수 \_ 02 3779 8640 \_ gskim@ebestsec.co.kr

Analyst 남대중 \_ 02 3779 8832 \_ djnam@ebestsec.co.kr

- 2Q2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295~300M (-6.1%YoY~-4.5%YoY, -6.0%QoQ~-4.4%QoQ)

2Q22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정점을 찍었던 재화 소비가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이슈 및 인플레이션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이 예상된다.

- Order-Cut(감산) 시작

2022년 초반까지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은 출하량 목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하며 업계는 한때 출하량 전망치를 +7%YoY↑까지 높이며 14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Sell-in(출하) 대비 Sell-Through(판매)가 저조한 가운데 주요 부품사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Order-Cut(발주량 감소)이 감지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하여 중화권 업체들은 -10%~-20% 감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며, 애플 또한 올해 출하량 목표를 기존 245M 이상에서 230M~240M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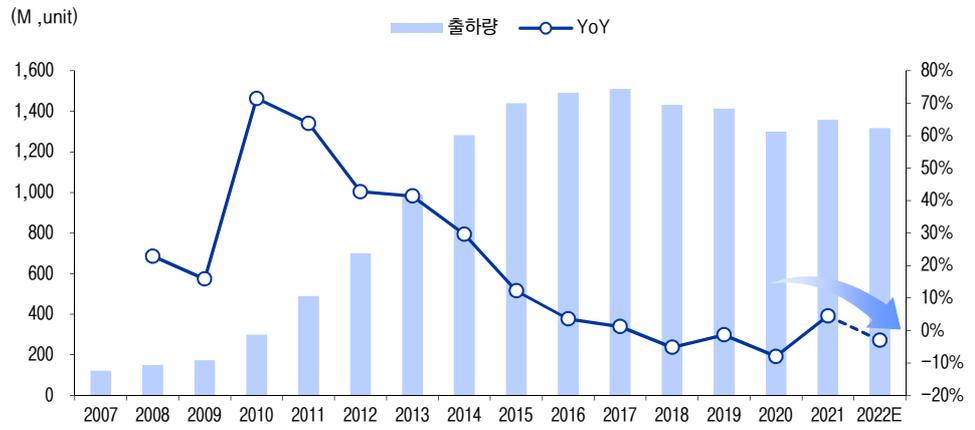
- 중국 22/04 스마트폰 출하량 17.7M(-34%YoY, -16%MoM)으로 22/03 21.0M(-41%YoY)에 이어 전년 대비 역성장 지속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중화권 업체의 기존 출하물량의 재고 소진이 부진했으며 이에 출하량 또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트(채널) 재고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주요 도시들의 봉쇄 지속과 소비력 감소로 2H22는 65M~70M 규모, 2022년 연간으로도 역성장이 예상되며 300M 수성이 위태로울 전망이다. 애플 아이폰이 포함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의 경우 3월 2.3M(점유율 11%, +3%pYoY), 4월 1.7M(점유율 10%, +0%pYoY)를 기록했다. 5G 모델 출하량 비중은 3월 75%, 4월 81%로 전년 대비 약 3% 수준 확대되었다.

- 애플 아이폰 14, 삼성 갤럭시 Flip4, Fold4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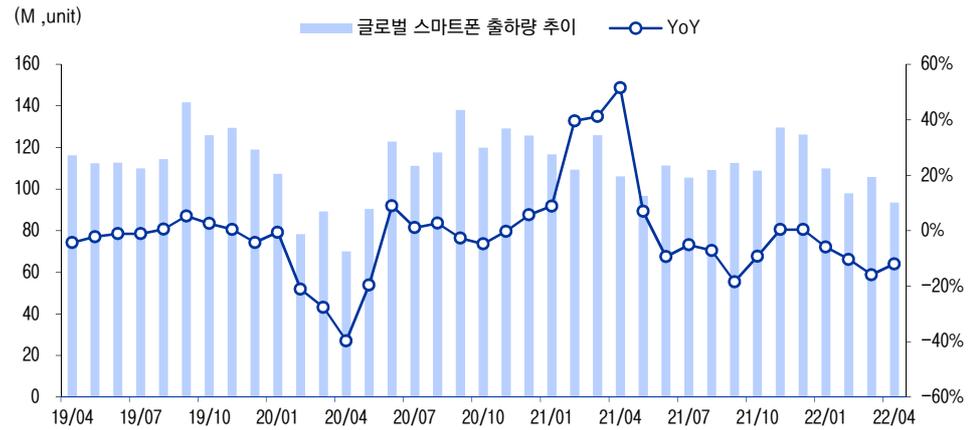
- 애플의 경우 '22년 4월 점유율 13.9%로 전년 대비 1.1%p 감소. 2H22 신제품 프로 Line-up 카메라사양 12M→48M 업그레이드.
- 중국 OEM은 모멘텀이 약해진 중국 내수시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약세가 지속.  
Rf. 22/04 점유율 현황: Xiaomi 12.1%(-3.0%pYoY), Vivo 7.8%(-2.4%pYoY), Oppo 7.9%(-2.4%pYoY)
- 삼성은 '22년 4월 점유율 27.3%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으며 신형국 중심 출하량이 확대되었음. 2H22 4세대 Foldable 제품을 출시 예정으로 스펙 측면 무게와 두께가 감소되고 가격은 전 모델 대비 인하될 것으로 예상. 올해 출하량은 13M~14M으로 추정하며 무엇보다 가격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

그림1 연도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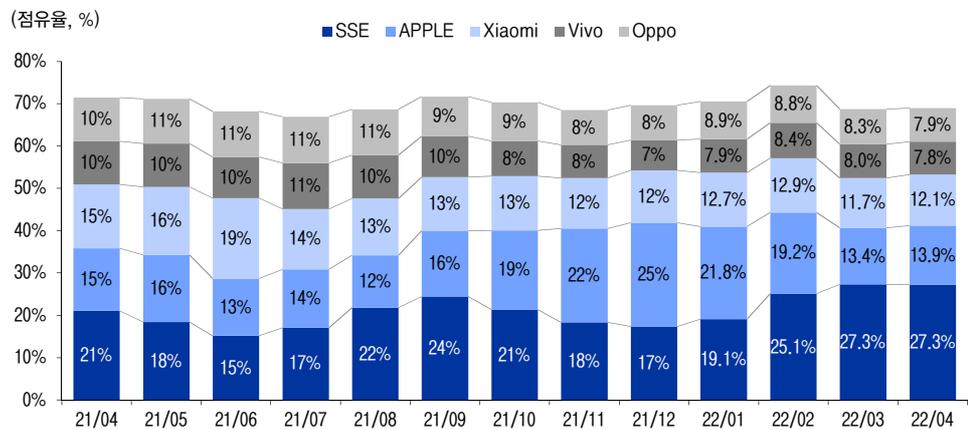
자료: S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월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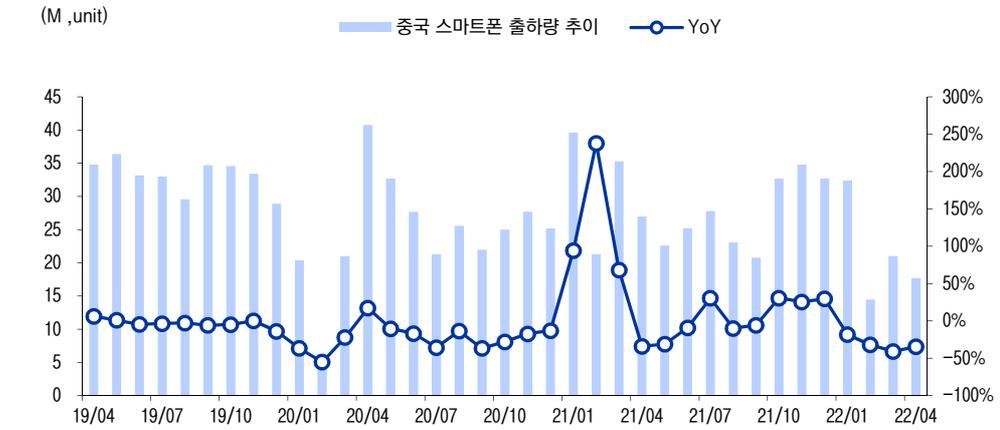
자료: S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월별 글로벌 스마트폰 주요 업체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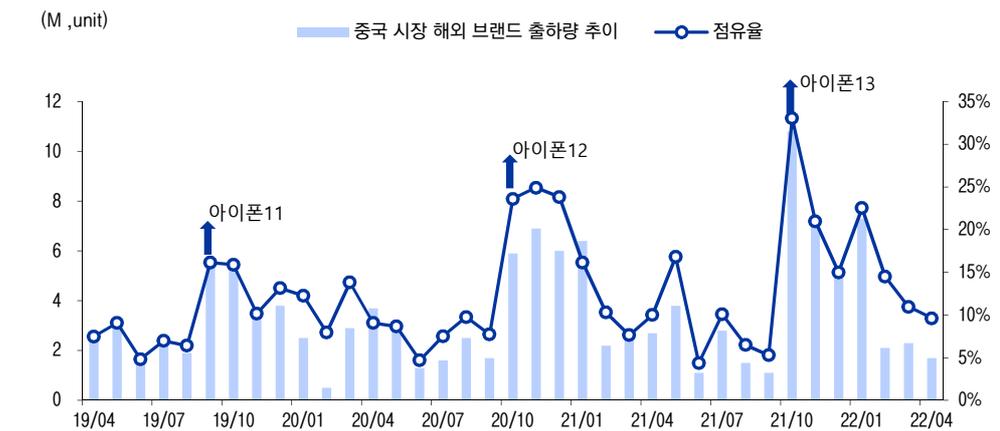
자료: S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월별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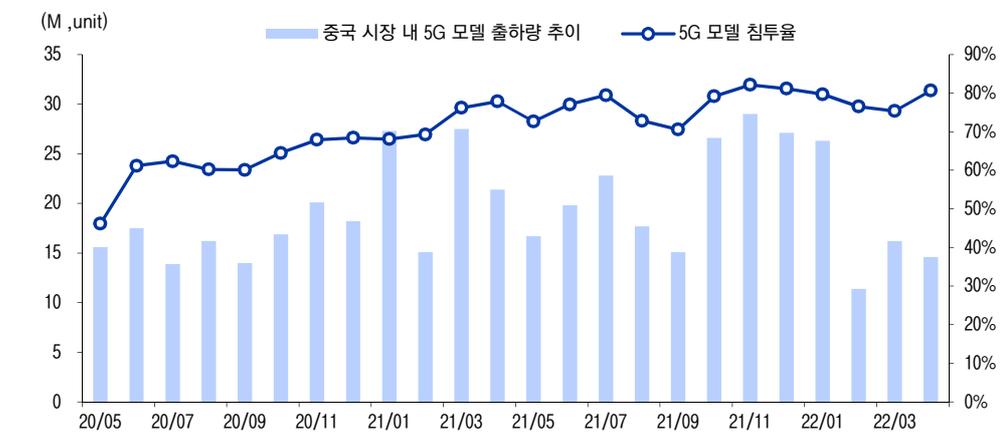
자료: CAIC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월별 중국 시장 내 해외 브랜드 모델 출하량, 점유율 추이



자료: CAIC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월별 중국 시장 내 5G 모델 출하량, 침투율 추이



자료: CAIC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광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지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b>Sector</b>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b>Company</b>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0.8% 9.2%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b>합계</b>		<b>100.0%</b>	투자 의견 비율은 2021. 4. 1 ~ 2022. 3.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